

# 아이들 '마음속 상처' 놀이로 풀어주세요

12월 8일 영주시장애인복지관(관장 도원) 강당. 엄마와 장애아동 60여명이 모였다. 이날 프로그램은 '대집단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장애아 부모의 일상탈출'이었다. 이날 조현영(가명·38세)는 아들 영우(가명·9)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가족구성원에 장애인이 있으면 아무래도 더 신경 쓰이기 마련이다. 내 아이가 남들과는 조금 다르기에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불편함에 대한 걱정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엄마의 생활환경 자체에 있다. 아이가 언어표현에 문제를 겪는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생활 속에서 내내 부딪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조씨가 가끔 참다못해 아이를 다그치기도 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이날 프로그램을 통해 조씨는 스트레스가 가득 낀 눈을 씻어내고 아이를 다시 바라보게 됐다. 아이가 복지관에서 '놀이치료'를 하고 올 때마다 기분이 좀 풀려서 들어온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이날 조씨는 '놀이'가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씩이나마 치유할 수 있었는지 알게 됐다.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조씨 자신이 마음을 풀어냈기 때문이다. 아이와 엄마의 놀이 스킨십도, 여자친구와 사귀는 여가를 두드리는 것도 조씨에게는 모두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조씨는 "이런 놀이가 우리 가족에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일상탈출'이라는 이름에 끌려 참가했는데 속이 후련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모두가 알고 있듯, '놀이'란 '일'이라는 개념과 대비된다. 즉, 어떤 의무감도 억압도 없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유희를 즐기는 모든 활동들이 놀이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런 놀이의 자유로운 특성을 활용, 정신치료의 영역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놀이치료'다. 현재 미국에서 활발히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약 10여년이 지났다. 이미 각 장애인복지관이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됐다. 그러나 장애아동을 둔 부모가 아니라면 그 용어 자체도 생소할

## 영주장애인복지관 '장애아 부모 일상탈출' 현장



기관명	연락처	치료비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02)841-2077	유료
목동청소년회관	(02)646-0181	유료
서울시립동부아동상담소	(02)248-4567	무료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02)441-5001	무료
원광아동상담센터	(02)562-2082	유료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02)438-2681	유료
이대언어청각임상센터	(02)312-9656	유료
인간발달복지연구소	(02)584-9368	유료
한국소아정신건강클리닉	(02)303-7745	유료

\* 그 외에 많은 사설기관과 일부 소아정신과내에서도 놀이치료를 하고 있다.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영주시장애인복지관 놀이치료는 사실 원 개념 '놀이치료'의 파생 영역이다. 놀이치료의 대상은 거의 어린이청소년으로 국한시키기 때문이다. 이유는 어른과 아이에게 놀이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른에게는 놀이가 단순한 유희지만

아이에게는 그 자체가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언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른들에게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요즘 놀이치료의 대상은 확실히 넓어졌다. 얼마 전까지는 발달장애, 자폐증 등 뚜렷한 장애 징후를 보이는 아이들만 그 대상이 되었다면 요즘은 장애 증세가 없다 하더라도

도 집중을 못한다면, 야뇨증을 자주 일으킨다면 하는 행동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까지 놀이치료 대상이 된다. 즉, 평범한 아이라 할지라도 과잉행동을 보이거나 특정 행동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놀이치료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놀이치료의 무엇보다 큰 장점은 '아이들을 이해하는 영역'이라는데 있다. 아이들에게 억압적으로 무엇인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유도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분노, 슬픔 등의 부정적 감정을 옹호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놀이치료의 종류에는 모래놀이치료, 게임놀이치료, 미술놀이치료, 음악치료 등이 있다. 가끔 용어의 혼란이 오기도 하는데 모두 이론적 배경의 차이에서 나온 치료기법일 뿐이다. 아이들에게 미술, 음악도 예술이 아닌 놀이기 때문이다. 모두 '놀이'라는 큰 틀에서 세분화한 기법들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이중 가장 생소한 모래놀이치료는 모래상자를 이용, 어린이청소년은 물론 성인까지 내면의 무의식 세계를 표출·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아이들이 모래의 촉감을 직접 느끼고 내면의 이미지를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놀이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놀이치료자가 있는 복지관 및 시설(표 참조)을 찾아 우선 상담을 받아야 한다. 아이의 성향에 따라 적합한 놀이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부모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것은 좋지 않다. 아이의 문제가 어떤 환경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관여로 아이가 위축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해인심리상담연구소 박해숙 놀이치료사는 "아동의 성격형성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모두 중요하며, 환경적 요인 중에서도 가족요인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무엇보다 억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가족 모두가 자연스럽게 놀이치료를 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강진 기자



## ⑧ 선재동자원 봉사자 윤선영씨

복지현장에서는 참 많은 청춘들이 오고간다. 서로 목욕지 일하는 것도 좋지만 단담 한마디가 원기를 북돋기도 하기에, 하지만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그 자리에서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모습, 그것 하나만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환희심을 불러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이번 이야기는 의정부 선재동자원(원장 지산) 봉사자 윤선영(48·사진)씨다.

## “봉사하면서 되레 배우지요”

“아유, 부끄러워요. 우리 불자들이 마음 다 똑같지 저만 그럴까요?” 선재동자원에서 만난 윤씨는 언제 나처럼 점심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이미 내 살림인 듯, 자연스럽게 그릇을 부시고 깔끔하게 정리해낸다. 수줍게 웃으며 자신은 인타부를 할 만큼 좋은 일을 하지도 않았다고 고개를 젓지만 그는 이미 아이들과 다른 봉사자들에게 인정받는 봉사자로 자리 잡았다.

의정부 선재동자원은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불교계 어린이청소년 생활시설이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만 현재 48명. 첫머리부터 고등학교까지 연령대도 다양하다. “아이들 생활시설이라고 괜히 좀 우울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다들 얼마나 밝다고요. 우리는 아이들 보는 것만으로도 흥전이 될 정도인걸요.”

처음 윤씨가 선재동자원 원과 인연을 맺은 것은 5년 전이다. 윤씨의 친구가 “아이들 돌보는 좋은 일 하는 스님이 계신다”며 선재동자원이 있는 통일안국사에 데려 온 것이 그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지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들었죠. 좋은 일 하시는 스님이셔서 제 마음속에 절로 그 좋은 마음이 옮겨 오는 듯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찰을 열심히 찾고 금전적인 후원을 하다 2년 전부터는 선재동자원에 아예 봉사자로 자리를 굳혔다.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어 집이 가까운 이유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지푸 그를 선재동자원으로 불러들였다고 한다. 요즘



은 일주일에 2번 이상 선재동자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아이들 눈망울 보면 내가 더 할 일이 없을까, 자꾸 생각하게 돼요. 다른 보살님들도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현재 '선재회'라는 이름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윤씨는 여기서 총무 겸 장보기 담당을 맡고 있다.

다. 항상 상심한 식재료를 만든 음식을 먹고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마음이 뿌듯할 수 없다.

윤씨가 소속된 선재회는 한 달에 두 번 선재동자원에 방문, 아이들 저녁 공양을 책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따로 조금씩 회비를 걷어 반전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새해가에는 아이들에게 일월 교복비도 200만원씩 내놓는다. 모두 아이들을 향해 한마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다는 바람들이다.

“지금 이대로, 다른 보살님들과 함께 아이들을 계속 돌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배워가는 것이 많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 2년째 선재동자원 봉사자로 활동

## 2월 2회 식사공양 교복비 보기도

## 이웃과 함께 '훈훈한 겨울나기'

### 교계 사회복지기관들 난방용품 지원 사업 팔 걷어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돼 날씨가 추워졌다. 그러나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얼어붙지는 않았다. 불교계 각 사회복지기관에서 연탄나누기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난방용품 지원 사업에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장관)은 12월 14일 금호건설과 함께 '사랑의 연탄나누기'를 진행했다. 금호건설 직원 21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선 이 행사에서는 복지관 인근 청신동과 명륜동 거주 저소득

층 어르신 5명을 대상으로 약 120장씩의 연탄을 전달했다. 내의, 이불 등의 겨울나기 용품도 연탄과 함께 보급됐다. 이에 앞서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상호)은 12월 5-7일 한국마사회 시흥지

점과 시흥시 1%복지재단 후원으로 시흥지역 저소득 장애인 및 독거노인에게 '행복을 전하는 연탄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를 통해 총 25세대 5000장의 연탄이 지급됐다. 이 행사에는 마사회 자원봉

사자 15명과 1%복지재단 직원 20명 등이 동원, 연탄을 나르며 구슬땀을 흘렸다.

한편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택)은 불교국제봉사단체 서울 반야라이온스클럽과 함께 12월 27일 독거어르신,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따뜻한 겨울보내기'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독거어르신 100명에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전기장판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02)2282-1106

김강진 기자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초·중·고 1, 2, 3학년 (남경차법대학부속실용학교)

##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20명 (4년 80명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석 사 과 정	3년	5명 (평점3.5이상)	· 여권용 사진 10매
박 사 과 정	3년	2명	

##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생활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7년 12월 28일**

##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亞東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 스 : 25-86798168
- ♣ 한국상담 안내처 :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학림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2006년 본과 합격자 명단

- 본과 합격자 -
- ▲강민정(경희대학원) ▲이거성(연세대) ▲한효정(단국대)
  - ▲이정화(건국대) ▲서연호(한국항공대) ▲박병수(명지대)
  - ▲박영문(영지대) ▲강성우(호남대) ▲이경환(배재대)
  - ▲이종환(우석대) ▲김재문(경남대) ▲최종건(UCLA)
  - ▲황진영(유성여고) ▲이정영(마산고) ▲황성환(대건고)
  - ▲정재형(성문고) ▲박상준(구정고) ▲이상훈(성신고)
  - ▲박민수(화수고) ▲이원영(동지고) ▲김인환(인항고)
  - ▲박선규(반포고) ▲송미나(광주여고) ▲김민성(휘문고)
  - ▲김준호(배운고) ▲김정우(현대고) ▲박은수(대덕고)
- 석사과정 합격자 -
- ▲신병룡(경희대 한의학과) ▲김병호(경희대 한의학과)
  -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중(북경중의대 한의학과)

##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 광 대 한의대학

대 전 대 한의대학

삼화불교 대학

한국총장 손혜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